

프리드리히 하일러의 유형론적 기도 이해

김재영*

- I. 머리말
- II. 기도 이해의 관점
- III. 기도의 유형
- IV. 기도의 내적인 구조
- V. 맺음말

I. 머리말

인간은 육체를 조화된 음식물을 통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듯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 또는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기도는 종교인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정신적인 양식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근원적인 조건이다. 집단적으로도 기도는 매우 필요하다. 기도가 없는 집단, 사회, 또는 국가는 건강할 수 없다. 종교적으로 기도는 모든 종교전통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기도가 없었다면 어떤 종교전통도 역사에 출현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올 수 없었다. 각 종교전통의 중심인물들이 근원적인 종교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하였을 때에도 무작정 그 경험이 나 가르침을 하늘로부터 아무 노력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피와 눈물이 섞여있는 고통스러운 기도 중에 받았다. 기도는 종교전통이 계속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의미와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주는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기도를 “종교의 영혼이고 본질”¹⁾이라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행동하는 종교이고 가장 참된 종교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현상이다.

* 강남대 교수, 종교철학

1) W.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29), 454쪽.

그리고 기도는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을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궁극적이고 영적인 실제 앞에다 쏟아부어 놓는 소통 행위이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다고 생각한 궁극적인 실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상세히 털어놓는다. 그러므로 반 델 레우가 지적하듯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대화이다.”²⁾ 고백적인 실재와 단절된 개인이나 종교전통은 마치 근원적인 양식의 원천지로부터 벗어나 있는 물고기들처럼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개인이나 종교집단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순교까지 한 것을 쉽게 종교사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각 종교전통은 기도에 관한 자료들을 무수히 갖고 있다. 각 종교전통의 서점에 가보더라도 기도하는 방법, 내용, 동기 또는 올바른 기도나 그릇된 기도 등을 알려 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담고 있는 책이나 조그마한 팸플렛 등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기도현상들을 상호 비교하여 일반적인 연구를 해 놓은 연구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현대 소통이론이나 기호학 또는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연구해 놓은 것은 거의 없다. 종교학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연구서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기도의 일반적인 측면을 연구한 타일러의 『원시문화』³⁾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우리가 이미 인용한 제임스의 『종교경험의 다양성』과 반 델 레우의 『종교의 본질과 표상』 속에 있는 기도 부분, 그리고 하일러의 『기도』가 전부이다. 이 중에서 비교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충실하게 기도현상을 소개하고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책은 하일러의 책뿐이다. 그러므로 종교현상 중에서 기도를 연구할 때는 하일러의 저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다.

한국도 다른 나라 못지 않게 종교천국의 나라여서 기도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이다. 기도는 한국의 헌신적인 종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중심적인 삶이어서 아무리 어렵고 육체적으로 피곤할지라도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참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산 속이나 예배당, 불당 등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외국사람들이 한국의 산기도, 새벽예불, 또는 새벽기도회를 보면 거의 충격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각 종교전통에서도 기도의 중요성 때문에 다양하게 기도에 관한 책을 출판하였지만 그것의 대상은 자신들의

2) G.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vol. 2, trans., by J. E. Turner(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63), 426쪽.

3) E. B. Tylor, *Primitive Culture*, 2vols., 4th ed.(London, 1903).

전통에 속해 있는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찬하였기 때문에, 그 전통에 참여하지 않은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들도 쉽게 인간의 근원적인 몸짓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해를 갖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더 나아가 일반학계에서도 기도 연구는 종교기관에서 할 것이지 일반 대학에서 한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식의 반응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계몽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근원적인 인간의 몸짓으로 파악하는 프리드리히 하일러의 기도 이해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하일러의 기도 이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각 종교전통의 기도 연구에 대한 지평을 훨씬 더 넓힐 것이고, 일반 학문 안에서도 기도라는 종교의 중심현상이 학문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II. 기도 이해의 관점

먼저 프리드리히 하일러(Friedrich Heiler, 1892-1967)의 학문적인 관심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기도 현상에 대한 그의 관점을 기술하기로 하겠다. 하일러의 그런 관심을 삶과 연결하여 자서전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책은 없다. 그러나 엘리아데가 편집한 『종교백과사전』 안에 이슬람 연구자인 심멜(Annemarie Schimmel)이 하일러의 생애와 학문범위를 스케치 형식으로 다룬 부분이 있다.⁴⁾ 그리고 에릭 샤프가 『비교종교학 — 그 연구의 역사』라는 책에서 약간 언급한 부분이 있다.⁵⁾ 이것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하일러의 학문적인 여정을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하일러는 독일의 종교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로 알려졌다. 그는 뮌히히의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뮌헨 대학교에서 신학, 철학, 심리학, 그리고 아시아 언어들을 공부하였다. 에릭 샤프에 의하면 하일러가 종교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스웨덴의 대주교인 나단 제더블롬(Nathan Söderblom)이 수정해서 출판한 틸레의 책을 통해서였다. 그 책을 읽고 난 이후 하일러는 종교현상 중에서 특히 기도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1917년에는 기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책

4) Annemarie Schimmel, "Heiler, Friedrich" in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6, edited by M. Eliade(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249-253쪽.

5) Eric J. Sharpe, *Comparative Religion: A History*(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5), 271-273쪽.

인 『기도: 종교사적이고 종교심리학적인 연구』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일년 후 1918년에 불교 전통의 명상에 대한 연구서를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의 연구는 제더블럼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제더블럼은 1910년에 카톨릭 전통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던 하일러를 스웨덴으로 불러서 루터파 교회에서 자유롭게 학문활동과 교회활동을 하게 해 주었다. 그러던 중에 종교철학적인 루돌프 오토가 1920년에 10여년 동안 스웨덴에서 교회활동과 학문활동을 하고 있던 하일러를 독일의 말부르크 대학교에 비교종교학 교수로 초빙하였다. 은퇴할 때까지 하일러는 그곳에서 재직하였다. 나치가 집권할 당시에는 하일러는 신학부에서 인문학부로 옮겨서 재직하였고, 1945년 이후에는 인문학부의 학장이 되었다.

종교적으로 카톨릭 전통에 참여하였던 하일러는 처음에는 카톨릭과 루터교회간의 일치운동을 일으켰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카톨릭 전통의 역사적인 문제점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카톨릭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카톨릭 의례의 중심을 이루는 미사는 영적인 삶을 유지시켜 주는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교회로부터 여전히 중세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모든 세계종교 전통들도 하나의 교회사상 안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물론 세계종교 전통들의 혼합주의적인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두 지향하여 상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성적인 가치에 근거한 종합을 시도하였다. 이런 측면 때문에 하일러는 종교간의 관용과 대화를 강조하였고, 급기야는 세계종교학회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일러는 종교학이라는 학문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운동을 종교학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하일러는 근본적으로 종교의 일치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폭넓은 신비적인 사랑의 영성 차원에서 종교사를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그 동안 제대로 서양에 이해되지 못해온 타 종교전통들,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신비주의 전통에 많은 애정을 쏟았다. 그리고 그는 참된 의미에서 종교간의 대화는 언제든지 개종의 가능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줄곧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되었던 사두 썬다싱의 개종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책까지 편찬하였다.⁶⁾ 그리고 하일러는 종교의 의미는 외면적인 차원인 축적된 전통에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신앙적인 차원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얼마든지 종교간의 만남뿐만 아니라 학문적으

6) Friedrich Heiler, *The Gospel of Sadhu Sundar Singh*, trans., by Olive Wyon(London: Oxford press, 1927).

로도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하일러는 종교의 가장 심층적인 부분인 기도를 연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하일러가 기도현상을 이해해 들어가는 관점을 네 가지로 기술해 보자. 첫 번째로 하일러는 어떤 특정한 종교전통의 관점에서 기도현상을 이해하지 않았다. 그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더라도 하더라도 그의 관점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오히려 하일러는 종교현상이나 종교사의 범주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종교 전통들이 보여주는 기도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가 인용한 내용들을 보면 특정한 전통의 기도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 전통들의 기도를 모아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두 번째로 하일러는 어떤 선형적인 이론이나 철학의 입장에서 연역적으로 기도의 본질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먼저 경험적으로 또는 역사 속에 흠어져 있는 다양한 기도들을 모아서 분석한 다음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을 귀납적으로 찾으려고 하였다. 세 번째로 하일러는 각각의 기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않았다. 즉 하일러는 원초적인 또는 원형적인 기도가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축적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종교현상학자들이 범하기 쉬운 기도현상의 공통적인 구조에만 관심을 갖은 나머지 역사적인 정황을 무시하는 예가 있기 쉬운데, 하일러는 그것을 직시하였다. 네 번째로 하일러는 기도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보류하고서 그 현상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원형적인 기도 즉 “자유롭고 자발적인, 즉 진심으로 우러난” 개인적인 기도들이 인간의 종교성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내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것에다 우선권을 두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나타난 의례적인 기도나 문서적인 기도 등은 가치면에 있어서 인간의 종교성과는 일차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비판을 하였다.⁷⁾

위의 네 가지 관점에 근거하여 하일러는 우선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도현상들을 유사점과 대조점에 근거해서 비교한 다음에, 각각의 기도현상을 유형화시켜서 목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각의 기도유형에 근거, 그 밑바닥에 흐르는 다양한 변이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묶을 수 있는 법칙을 통하여 기도현상을 명료하게 이해하려고 하였다.

7) Friedrich Heiler, *Prayer: A Study in the History and Psychology of Religion* translated and edited by Samuel McComb(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7).

Ⅲ. 기도의 유형

하일러는 기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시켜서 분류하였다. 하나는 근본적인(primary) 유형의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부차적인(secondary) 유형의 기도이다.⁸⁾ 전자는 개인의 영혼이 자신의 심층적인 내면 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도이다. 이것은 모든 기도들의 원형이 된다. 이런 기도의 특성은 표현이 매우 단순하지만 논리적인 전개에 방해받지 않아서 매우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고, 더 나아가 추상적인 사변 세계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심층 속에서 얻은 경험, 특히 고통 가운데에서 느낀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 하일러는 이런 기도를 참된 기도, 또는 인간의 종교성 내지는 진리를 드러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반면에 부차적인 유형의 기도는 전자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가슴에서 솟아난 기도의 단순한 모방 내지는 개념화이다. 이런 유형의 기도는 전자보다는 역동적인 측면에 있어서 깊지도 넓지도 않다. 오히려 이런 기도는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때로는 설교와 같이 교훈적이고 도덕적이며, 때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장황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경험들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매우 추상적으로 이미 기존에 존재해 있는 기도들의 단순한 표절 내지는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자의 직접 경험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그래서 하일러는 의례화되어 있거나 작성되어 있는 기도보다는 즉각적으로 드러지는 자발적인 소박한 개인들의 솔직한 기도를 원형적이고 진실한 기도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하일러는 인간의 종교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원형적인 기도를 “원시인”의 소박한 기도, 종교적인 천재들의 열렬한 기도, 위대한 예술가들과 시인들의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은 공식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로 유형화하였고, 반면에 찬송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스 문명 속에 드러나 있는 기도, 철학적인 사상 속에 담겨 있는 기도, 의례적인 기도, 그리고 의무감과 선행의 요소로서 드리는 기도는 모두 이차적이고 부차적인 기도로 유형화하였다.⁹⁾ 먼저 원형적인 기도부터 살피기로 하자.

첫 번째 유형은 “원시인”들이 드리는 소박한 형태의 기도이다. 원시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다른 유형의 추상적인 문서화된 기도보다는 훨씬 역동적이고 솔직한 특

8) 같은 책, 354쪽.

9) 같은 책, 354-355쪽.

성을 갖고 있다. 원시인들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즉각적으로 그 상태에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탄원적인 기도를 열광적으로 한다. 이를테면 기근이 들었다거나 말할 수 없는 재난을 당했다거나 적이나 맹수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경우나, 또는 어린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열정적인 기도를 드린다. 물론 앞의 열정적인 기도와는 강도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달라는 기도들을 드리기도 한다. 이를테면 그들은 좋은 사냥감이나 수확을 거두어들이기를 바라는 시기인 씨를 뿌릴 때 또는 사냥터에 나아가기 직전에 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시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기적으로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기도가 모두 그런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원시인들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탄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원시인들은 궁극적인 타자의 성스러움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성스러운 힘으로부터 자신들이 어떤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원시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라기보다는 비형식적이고 매우 자발적인 창조 행위이다. 이런 기도의 특성은 반드시 원시인들의 삶 속에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현대인들도 위급한 상황에 도래하였을 때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기도라든가 또는 귀에 너무나 익숙한 문서화된 기도, 이를테면 주기도문과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를 담고 있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일러는 원시인들의 기도를 다양하게 분석한 다음 기도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¹⁰⁾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궁극적인 실재를 구체적으로 불러내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불평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질문을 그 실재에다 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는 청원을 할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이나 씨족 때로는 부족 공동체의 일원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부족이나 씨족 공동체의 수장이나 무당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재적이고 중보적인 청

10) 같은 책, 16-38쪽.

원을 드리기도 한다. 그리고 난 다음 계속해서 고백한 실재에다가 회생을 할 것과 서원을 약속하면서까지 그 실재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움직이려고 설득한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동정심을 신으로부터 유발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신까지도 위협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리고 원시인들의 기본적인 기도는 죄의식이거나 도덕적인 업매임으로부터 해방 받기 위해서 드린다고보다는 오히려 당장 주위에 떨어져 있는 불운이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원시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심정적으로 이해하여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신에게 의존적이고 신뢰하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을 써서 기도를 끝맺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불평만 한다.

원시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모두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열정적인 몸짓을 동반한다.¹¹⁾ 기도의 몸짓은 언어보다도 훨씬 오래된 것이고 오히려 여타의 모든 언어들인 그 몸짓에 부차적으로 따라온 것들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관계가 정반대가 되어서 기도의 몸짓보다도 기도의 언어들인 더욱 부각되었다. 즉 현상 속에서 경험한 감정적인 내용들은 인간의 마음의 심층으로부터 나와서 제일 먼저 언어를 만들기보다는 육체의 몸을 움직인다. 몸짓이 인간마음의 감정을 담아내는 가장 근원적인 그릇인 것이다. 그러므로 원시인들은 기도할 때 다양한 자세를 취한다. 서서 기도할 때도 있고 무릎을 꿇고서 기도할 때도 있다. 때로는 쭈그리고 움츠리고 앉아서 또는 굽혀서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할 때도 있다. 또는 강충강충 뛰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손을 퍼면서 기도할 경우, 정반대로 손을 꼭 끼면서 기도할 때도 있다. 손뼉을 치거나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또는 신발을 벗거나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벗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종교적인 천재들이 드린 기도이다. 하일러는 원시인들의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심리적인 감정상태로 보아도 이 기도가 훨씬 강렬함을 지적하였다. 종교적인 천재들은 자신들이 고백하는 궁극적인 실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도는 첫 번째 유형처럼 위급하거나 필요한 상황인 특별한 경우에 드린다고보다는, 인간의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과 양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드러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외부적인 상황보다

11) 같은 책, 41-42쪽.

는 자신들의 내면적인 심층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들, 이룰데면 기쁨, 슬픔, 공허함, 나약함, 평온함, 도덕적인 순수성 등을 드러내 놓는 기도를 한다.¹²⁾ 이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영혼의 모습을 늘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 때문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기도는 바로 신의 은총의 드러남 이외는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예들은 종교전통의 중심 인물들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룰데면 예수는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였다. 모하메드, 붓다, 로올라, 루터, 칼뱅 등도 모두 하늘의 뜻을 구체화시키는 기도를 드렸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들이 고백하는 실재의 은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역사적인 뿌리를 지니고 있다.¹³⁾ 다시 말해서 이들의 기도는 이들 이전에 살았던 위대한 종교천재들의 기도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역사적인 단절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내려온 기도들과의 다양한 연관 위에서 기도한다. 이룰데면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의 기도는 예수의 기도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온 것은 선지자들의 기도를 현실화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명상적인 기도는 자신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던 브라만교 전통의 명상적인 기도와 역사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원시인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종교적인 천재들의 기도 안에는 기도 자체 안에 이미 깊은 역사성을 담고 있다.

하일러는 다시 종교적인 천재들의 기도를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유형의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자적인 유형의 기도이다. 물론 하일러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욱 높게 평가하였다. 신비주의 유형의 기도는 세상에서 경험했던 불만족을 해소시키는 데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고 궁극적인 실재와의 합일에 목적이 있다. 즉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분리해서 오로지 신과의 합일만을 추구한다. 이 기도는 원시인들처럼 감정에 대한 외면적인 폭발이 아니라 영혼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승화시켜 내면적으로 조용하게 침잠시킨다. 물론 이 기도는 열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순화시켜 표현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 안에 열정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체적으

12) 같은 책, 105쪽.

13) 같은 책, 113쪽.

로 집중(concentration), 명상(contemplation)과 황홀경(ecstasy)이 있다. 집중의 방법을 사용하는 신비가들은 처음에는 기도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하려는 회개나 슬픔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내면을 정화시킨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고백하는 궁극적인 실재에다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표출하여 자신들의 내면을 밝혀서 평화와 안식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고백하는 궁극적인 실재를 의지하고 믿는 차원에서 평화를 얻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 실재와 하나가 되려는 연합을 갈구한다. 명상이나 황홀경의 형태의 기도들도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강도 면에 있어서는 황홀경의 기도가 훨씬 강렬하다.

반면에 예언자적인 유형의 기도는 신비주의자들의 기도와는 달리 궁극적인 실재와의 합일을 이루어 자기 자신을 소멸시키는 데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공포, 낙담, 부끄러움, 부정의와 같은 사회적인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¹⁴⁾ 신비주의 기도처럼 이런 형태의 기도도 내면적인 감정의 혼란을 순화시켜 적극적으로 궁극적인 실재에다가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탄원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기도는 끝까지 내면적인 자아를 소멸시키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강화시켜 나아가므로 사회적인 윤리를 실현시키는 데 많은 가치를 두기도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시인이나 예술가들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하일러는 이 기도를 종교적인 천재들의 기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물론 이들의 기도는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의 기도처럼 세상을 걱정하는 데에서 비롯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술적인 영감을 얻을 목적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도 매우 자발적이고 열정적이고 창조적이다.

하일러는 다시 이 기도를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¹⁵⁾ 하나는 심미적이고 관상적인 유형의 기도이며, 다른 하나는 감정적이고 윤리적인 유형의 기도이다. 이 유형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종교적인 천재들의 기도의 두 가지 유형과도 매우 흡사하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심미적이고 관상적인 유형의 기도는 신비주의 유형의 기도처럼 자기자신을 정화하거나 소멸하여 궁극적인 실재와의 합일을 이루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고유한 인격적인 자아를 소멸시키지 않고 인정한다는 점과 이 세상의 아름답고 고귀한 존

14) 같은 책, 239-240쪽.

15) 같은 책, 288쪽.

재들 속에서도 궁극적인 실재가 있다는 범신론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반면에 예언자적인 유형의 기도를 담은 감정적이고 윤리적인 유형의 기도는 예언자의 기도처럼 도덕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예술적인 창조가 지향하는 이상의 실현에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물론 모든 예술가들의 기도가 이렇게 분명히 유형화되거나 상호 배타적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유형의 기도는 공적인 예배에서 드러지는 기도이다. 공적인 예배의 기도는 예언자적인 기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모든 인간의 구원에 강조점을 둔다. 모든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예배의 기도 중에 꽤 많은 기도는 회중들의 종교적인 열망을 강화시키고 깨어나게 해서 회중들 각자에게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헌신을 불러낸다. 이런 유형의 기도는 앞에서 기술한 기도처럼 자발적이고 창조적이므로 원형적인 유형의 기도에 매우 가깝다. 그러나 회중기도 중에 많은 부분은 기계적으로 형식화되어서 더 이상 내면적인 감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부터는 하일러가 유형화해 놓은 이차적이고 부차적인 기도를 살피기로 하자.

첫 번째 유형은 찬송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이 부분은 독일어 원본에는 부차적인 기도로 분류되어 포함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본에는 생략되어 있다. 찬송으로 드리는 기도는 처음에는 원시인들의 기도 속에서 나왔지만 리듬과 운율적인 구조를 지닌 찬송은 고대문명의 종교전통들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하일러는 찬송기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성직자가 스스로 작곡하여 보전해 온 의례적인 찬송(cultic hymn)이고, 다른 하나는 평신도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한 문학적인 찬송(literary hymn)이다.¹⁶⁾ 전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드러지므로 신에게 아첨하는 측면을 많이 보여준다. 겉으로는 세련되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기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으므로 정직하고 소박한 기도라기보다는 마술적인 기복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반면에 후자의 기도는 전자와는 다르게 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나 사랑의 감정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평신도들이 작곡한 찬송기도이다. 물론 그들의 기도는 성직자들의 기도처럼 사려 깊고 종교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문학적인 찬송의 기도는 주로 자연 속에 거주하는 태양신과 같은 자연

16) David M. Wulff, *Psychology of Religion: Classic and Contemporary Views*(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91), 536쪽.

신들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다. 하일러에 의하면 이 기도는 탄원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신에 대한 찬양이 그 목적이므로 내면적으로 성숙한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두 번째 유형의 기도는 그리스 문명의 종교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인들이 주로 드린 기도들이다. 물론 이들의 기도도 많은 측면에 있어서 원형적인 기도와 유사점이 있지만, 원시인들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고귀하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높은 윤리적인 이상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한 측면도 있지만 아울러 도덕적인 가치들의 실현을 위해서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복수심으로 가득 찬 기도들도 많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철학적인 기도이다. 이런 기도는 앞에서 살펴본 행복을 추구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모두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철학적인 기도자들은 최상의 윤리적인 이상의 실현과 모든 욕망의 소멸을 통해서 운명에의 철저한 복종, 그리고 모든 만물 속에 계시되어 있는 신의 위대함, 존재의 신비,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단순한 관상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 속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내면적인 고통을 해소해 달라는 기도자의 열렬한 간청이나 탄원은 찾아볼 수 없다.¹⁷⁾ 그래서 하일러는 철학적인 기도는 이성적인 삶에 강조점을 두므로 더 이상 종교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를 와해시킨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인간의 종교성을 담아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한다.

네 번째의 유형은 의무감이나 선행을 위해서 드리는 윤리적인 기도이다. 이 기도도 현실의 어려움이나 내면적인 갈망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희망,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기도라기보다는 강제적으로 부여된 의무감 때문에 드러지는 것이므로 순수성을 찾을 수는 없다. 매우 형식적이고 생각 없이 드리는 기도이므로 이 기도는 모든 참된 종교적인 가치가 없는 빈 껍데기와 같다. 물론 때로는 이런 기도가 실질적으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일반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깨우쳐 주기도 한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의례적인 기도이다. 이 기도는 내용 면에 있어서 원시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과 거의 같다. 즉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고 희생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도는 원시인들의 경우처럼 강렬한 역동성을 찾을 수 없다.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어서 개인들의 내면적인 경험과는 무관하게 화석화

17) F. Heiler, 위의 책(1927년), 102쪽.

(petrification)되어 앵무새처럼 읊조릴 뿐이다.

IV. 기도의 내적인 구조

하일러는 다양한 기도의 유형들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술한 다음 제 3장인 “기도의 본질”에서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¹⁸⁾

첫 번째로 기도는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현상이다. 하일러에 의하면 인간은 현실적인 삶 속에서 부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곁에서 보면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듯하지만 언제나 공허감과 무기력 때문에 생겨나는 내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은 지금보다는 좀 더 외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보다 높은 고양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예를 들면 원시인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좋은 사냥감을 위해서 긴급한 기도를 드릴 것이고, 온건한 신비주의자들은 궁극적인 실재와의 근원적인 합일을 그리워하면서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죄의 용서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드린다. 마찬가지로 불자들도 모든 욕망의 원인이 집착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높은 고양된 삶을 이어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 또는 수행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다양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의 내면적인 마음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다양한 분석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도는 궁극적으로 고백적인 실재에 대한 믿음의 행위이다. 하일러에 의하면 기도의 본질적인 뿌리는 심리적인 측면보다 더 깊은 지성적인 믿음에 근거한다. 즉 인간은 삼리적인 불안 때문에 기도를 드린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근원적으로는 자신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의 확신 때문에 기도한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고백적인 신앙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 실재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자에게

18) 같은 책, 355-356쪽.

있어서 그 실재는 저 멀리 떨어져서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개입하고 있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실재이다. 기도자 앞에 직접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현존해 있다. 기도자의 마음속에는 궁극적인 실재에게 기도들 하면 반드시 들어준다고 하는 확신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그 실재의 뜻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기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직접 하일리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하자.

“모든 기도는 또 다른 타자를 향하며 자신의 마음을 내면적으로 여는 것, 즉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즉 그것은 내가(I) 타자인 당신(thou)에게 하는 연설이다. 헌신적인 신앙인이 관계를 맺는 타자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한 인간은 아니다. 그 타자는 인간에게 스스로 의존감정을 불러내게 하는 초감각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그 타자는 인간처럼 사고, 의지, 감정, 그리고 자의식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실재이다. …인격성에 대한 믿음은 모든 기도의 필요한 전제 즉 근본적인 조건이다.”¹⁹⁾

“신의 인격성에 대한 믿음과 신의 현존에 대한 확신은 기도의 두 개의 전제조건이다. 기도 그 자체는 인격적인 신의 실재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한 믿음은 유신론적인 형이상학일 뿐이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의 현존에 대한 단순한 경험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의 위대한 사람들의 삶과 사상 속에 따라오는 부수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도는 신과 인간과의 살아있는 관계, 즉 직접적이고 내재적인 접촉, 하나의 은신처, 상호소통, 하나의 대화, 영적인 거래, 연합, 교통, 친교, 교제, 즉 ‘나’와 ‘타자’와의 합일이다.”²⁰⁾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는 원시적인 기도나 예언자들의 기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신에게 영향을 미쳐서 기도자의 이기적인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 있지 않다. 물론 이런 기도는 역동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원형적이다. 그러나 하일리에 의하면 본질적인 기도는 “유한자의 정신과 무한자의 정신 사이에 흐르는 신비스러운 접촉에” 놓여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일리는 쇼펜하우어나 포이에르바흐처럼 심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밖으로 투사하여 신으로 격상시키는 심리적인 실재로의 신을 이해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실재로서 신을

19) 같은 책, 356쪽.

20) 같은 책, 357쪽.

이해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일러는 신에 대한 심리화적인 환원을 극복한다.

세 번째로 기도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궁극적인 실재와의 소통행위로서 기도는 사회적인 관계를 반영해 준다. 기도만큼 기도자와 사회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행위는 없을 것이다. 즉 자식과 부모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기도의 내용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만일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친밀한 사회적인 관계를 기도 속에 발견할 수 없다면 그 기도는 상호교통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응시 내지는 찬양이어서 형식적이고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원시인들의 기도와 종교적인 천재들의 기도 안에서는 마치 자신들이 아버지, 신랑, 또는 친구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애원하는 심정으로 솔직하게 온 정성을 다 들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회적인 관계의 유추이다.

이 세 가지의 본질적인 특성에 근거해서 하일러는 종교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의 형태들을 반영해 주는 소통, 즉 경험적으로 현존해 있고 인격적인 분으로 인식하는 신과 종교적인 인간과의 살아 있는 소통이다.”²¹⁾

V. 맺음말

지금까지 나는 프리드리히 하일러의 유형론적인 기도에 대한 이해를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기도: 종교사와 종교심리화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일러에 의하면 기도는 종교현상의 근본적인 모습이어서 종교현상과 그 밖의 다른 현상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준거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현상은 감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 현상을 일반적으로 규정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업 가설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이론이 필요하다. 하일러는 그 이론을 현상학적인 유형론에서 찾아서 모든 기도현상을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유형, 즉 원형적인 유형과 이차적인 유형으로 나누었고, 구체적으로는 아홉 가지로 분류하여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하일러는 기도현상을 단순히 분류하여 기술하는 데 자신의 임무를 끝맺는

21) 같은 책, 358쪽.

것이 아니라, 원형적인 유형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각 종교전통에서 축적되어 내려온 이차적인 유형들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하일러의 유형 이해를 기술한 다음 마지막으로 하일러가 마지막 장에서 기술한 것을 토대로 심리적인, 초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특성들을 기도의 내적인 구조들로 이해하였다.

물론 유형론적인 이해가 모든 기도현상을 담아 낼 수 있는 완전한 그릇도 아니고, 잘못하면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 현상을 유형화시킨 저자의 의도대로 조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일러는 나름대로 일반론자의 자리에서 기도현상을 접근해 볼 수 있도록 안내판 역할을 해주었음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앞으로 그의 유형론적인 이해를 창조적으로 우리의 기도현상을 분석하는데 하나의 모델로 사용한다면 “한국적인”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을 것이다. 그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남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론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원형적인 기도 못지 않게 이차적인 기도들도 정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인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실재에 좀 더 가까이 다가 설 수 있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하일러는 의례 속에서 이루어진 기도는 모두 이차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였는데 이 점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때로는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의례적인 기도가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종교전통 내지는 문화전통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는 데 방해역할이 아니라 계몽적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동시에 아무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아무리 개인적인 기도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기도 속에는 기도자 자신이 직간접으로 자신의 종교전통으로부터 받아들인 기도의 내용, 모습, 스타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도를 표출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오히려 의례적인 기도가 기도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차적인 기도를 무조건 원형적인 기도에 종속시키는 것보다는 상호 연관성 안에서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도를 단순히 인간과 궁극적인 실재 사이의 언어적인 소통 행위나 그렇지 않으면 의례적인 행위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각 종교전통이 이해하는 기도 이론과 연결하여 기도자체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지식이론(metaprayer)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²²⁾ 다시 말해서 언어적인 텍스트, 의례적인 행위로서만 기도

를 이해하지 말고 기도에 대한 여타 이론적인 이해들과도 비교하여 좀 더 광범위한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각 종교전통 안에서 철학, 교리, 신학, 설교 등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론들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또는 기호학적인 소통이론들을 모두 포함하여 기도행위를 비교연구하면 좀 더 심층적으로 기도 이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각 종교전통의 근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각 전통 속에 있는 교파들과의 차이점까지도 극명하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22) Benjamin Ray, "Performative Utterances in African Rituals" in *History of Religions* 13(August, 1993)과 San D. Gill, "Prayer as Person: The Performative force in Navajo Prayer Acts" in *History of Religions* 17(November, 1979) 참조.